

책의 제목은 무엇인가요?

그리스인 조르바/ 니코스 카잔차키스

어떤 이유로 이 책을 읽게 되었나요?

예전에 정환 리더님께서 읽었었던 것을 소개시켜주셔서 흥미가 생겨 읽어보았음

**다른 회원들에게 읽어주고 싶은
책에서 좋았던 구절을 적어주세요,
그 구절이 좋았던 이유는 무엇인가요?
무엇이 당신의 마음을 움직이게 했나요?**

'나는 올리브와 빵을 먹고 물만 마시겠소. 하지만 요셉은 악마올시다. 형제들이여, 요셉은 여러분들처럼 고기를 먹습니다. 닭고기도 좋아합지요 - 오, 이놈의 악령 - 요셉은 여러분 술통에서 포도주도 좀 마실 겁니다!'

'처먹어라, 이 악령아!' 그는 닭고기를 큼지막하게 뜯어 입속에다 처넣으며 중얼거렸다. '처먹어!'

"말썽이 생기는 건 질색이에요!" 내가 짜증으로 응수했다.

내가 짜증을 낸 것은, 내 내부의 욕망 역시 암내를 풍기며 지나간 그 탄탄한 몸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.

"말썽이 질색이라고!" 조르바가 어이없다는 듯이 소리쳤다.

"어디 좀 들어봅시다. 두목이 원하는 건 도대체 뭔지."

나는 대답하지 않았다.

"산다는 게 곧 말썽이오." 내가 대꾸하지 않자 조르바가 계속했다. "죽으면 말썽이 없지. 산다는 것은..... 두목, 당신, 산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 아시오? 허리띠를 풀고 말썽거리를 만드는 게 바로 삶이오!"

책을 다 읽고 나서 감상에 대해서 말해주세요

보고나면 자꾸 생각나는 영화처럼, 읽고나면 자꾸 생각나는 소설.

곱씹어 보고 곱씹어 보면서 삶이란 무엇인가,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, 이것저것 생각하게 하는 소설이었다.